

아이오닉 6, 폴스타·니오 전기차 경쟁 모델 제쳤다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웃도 모터 운트 슈포트' 평가 1위 중형 전기 세단 부문...전용 플랫폼 E-GMP 상품성 우수

아이오닉 6가 독일 유력 자동차 전문지에서 실시한 비교 평가에서 최고 경쟁력을 입증했다.

현대차 아이오닉 6는 독일 자동차 전문 매거진 아우토 모터 운트 슈포트(Auto Motor und Sport)가 최근 진행한 중형 전기 세단 3종 비교 평가에서 폴스타와 니오의 경쟁 모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아우토 모터 운트 슈포트는 아우토 빌트(Auto Bild), 아우토 자이퉁(Auto Zeitung)과 함께 신뢰성 높은 독일 3대 자동차 매거진 중 하나로 독일은 물론 유럽 전역의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매체다.

이번 비교 평가는 아이오닉 6, 폴스타 2, ET5 등 유럽 중형 전기 세단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3개 모델을 대상으로 ▲바디 ▲안전성 ▲편의성 ▲

파워트레인 ▲주행성능 ▲친환경성 ▲비용 등 7가지 평가 항목에 걸쳐 진행됐다.

아이오닉 6는 바디, 안전성, 편의성, 파워트레인, 친환경성 등 5가지 항목에서 1위를 기록하며 총점 382점으로 경쟁 모델인 폴스타 2(576점)와 ET5(519점)를 제쳤다.

특히 아이오닉 6는 항속거리, 전비, 소음 및 진동 등과 관련된 파워트레인 항목에서 평가 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인 104점을 받았다. (폴스타 2 103점, ET 5 93점)

아이오닉 6는 평가 모델 중 가장 적은 용량인 77.4kWh 배터리를 탑재했음에도 1회 충전 가능 거리가 433km로 가장 큰 용량인 100kWh 배터리를 장착한 ET5와 불과 14km 차이를 보였으며, 82kWh 배터리를 적용한 폴스타 2보다는 49km 더 주



현대차 아이오닉 6가 최근 독일 자동차 전문 매거진 아우토 모터 운트 슈포트(Auto Motor und Sport)의 중형 전기 세단 3종 비교 평가에서 폴스타와 니오의 경쟁 모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사진은 아이오닉 6. <현대자동차그룹 제공>

행이 가능했다. (ET5 1회 충전 가능 거리는 447km, 폴스타 2는 384km)

뿐만 아니라 100km 주행에 따른 전기 소비량도 아이오닉 6는 25.5kWh/100km로 폴스타 2(28.2kWh/100km, ET5 29.4kWh/100

km보다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로써 현대차는 아이오닉 6를 통해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를 탑재한 전기차의 우수한 상품성을 다시 한번 입증해 보였다.

또한 아이오닉 6는 안전 사양, 주행 안전성, 제동거리 등과 관련된 안전성 항목에서 폴스타 2를 6점차로 따돌리며 뛰어난 상품 경쟁력을 증명했다.

아우토 모터 운트 슈포트는 "아이오

닉 6는 긴 항속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짧은 충전 시간을 갖췄다"고 호평했으며 "안전한 주행을 돕는 다양한 사양들과 안정적인 브레이크 성능도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아이오닉 6는 지난해 11월 미국 자동차 전문 웹사이트 에드먼즈(Edmunds)가 발표한 전기차 충전 시간당 주행거리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최근 미국 에너지부 환경보호청(EPA)이 공동 운영하는 연료절약 정보 사이트 퓨얼이코노미(Fueleconomy)에서 최고 연료 소비효율 차에 오르기도 했다.

또한 아이오닉 6는 주요 전기차 시장인 유럽에서 많은 수상 실적을 기록하며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9월 독일 올해의 차 어워드 뉴에너지 부문에 수상했으며, 11월에는 2024 아일랜드 올해의 차에, 12월에는 2024 스코틀랜드 올해의 차와 대형 EV 부문에 선정됐다.

또한 올해 3월 2024 영국 올해의 차 어워드에서 패밀리카 부문에 수상한 바 있다. /임채만 기자

금호타이어, 레이싱팀 '솔라이트 인디고 레이싱' 후원

레이스카와 드라이버 슈트에 브랜드 노출

금호타이어가 현대N페스티벌 eNI 클래스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대표 레이싱팀 '솔라이트 인디고 레이싱'을 공식 후원한다.

15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최근 열린 후원 조인식에는 금호타이어 운영팀 G.마케팅담당 상무와 현대성우솔라이트 고장환 레이싱 담당 이사 및 이재우 감독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진)

eNI 클래스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메이크(단일 차종) 레이싱인 '현대 N 페스티벌'의 전기차 레이스로 아이오닉 5 N eNI 컵카로 레이스가 진행된다. '아이오닉 5 N eNI 컵 카'는 최고 출력 478kW(650마력)의 전 후륜 모터와 84.0kWh의 고출력 배터리 등 첨단 전동화 기술을 집약해 주행 성능을 극대화하고 서킷 주행을 위한 여러 요소를 추가해 제작한 경주차다.

솔라이트 인디고 레이싱은 1997년 창단해 대한민국 모터스포츠를 이끌고

있는 국내 최고의 레이싱팀으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현대성우그룹 소속 모터스포츠팀이다. 지주사인 현대성우홀딩스와 더불어 알로이칼 및 주물 제품 제조사인 현대성우캐스팅, 자동차 배터리 등 연축전지 전문기업인 현대성우솔라이트, 물류 사업 및 신소재 개발사인 현대성우신소재가 현대성우그룹 내 속해 있다.

올해 창단 27주년을 맞이한 솔라이트 인디고 레이싱은 명실 공히 국내 최정상 모터스포츠팀으로 국내외 무대에서 활약 중이다.

특히, 2019년 블랑팡 지터 월드 챌린지 아시아 드라이버 종합 우승, TCR 아시아 팀 종합 2위 달성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 모터스포츠의 위상을 높인 바 있다. 또한 2023년 TCR 이탈리아에 아시아팀 최초로 폴 시즌 출전에 톱10에 진입하는 등 모터스포츠 본고장 유럽 진출 원년에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후원 계약을 통해 2024시즌 동안 솔라이트 인디고 레이싱팀 레이스카와 드라이버 슈트에 금호타이어 브랜드를 적용한다. 또한 솔라이트 인디고 레이싱팀에 금호타이어 레이싱 타이어를 공급하며 국내 최초 EV 레이싱인 eNI 클래스에서 최상위 레이싱 타이어 기술력을 입증할 계획이다.

현대성우솔라이트 고장환 이사는 "금호타이어에서 이번 후원을 결정해 주셔서 매우 감사 드린다. 특히 글로벌 타이어사의 전문적인 대회 출전 후원

이 전기차 레이스에 처음 출전하는 팀에게는 매우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양사 상호 발전은 물론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로의 확대 더 나아가 국내 모터스포츠 발전과 저변 확대에도 좋은 사례로 남길 바란다"고 전했다.

운영팀 금호타이어 G.마케팅담당 상무는 "국내 최고의 명문 레이싱팀인 솔라이트 인디고 레이싱팀과 후원 계약을 해 매우 기쁘다"며 "이번 계약으로 양사는 신뢰관계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 국내외 모터스포츠 분야에서 다양한 협업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CJ슈퍼레이스 드라이버 및 팀 통합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하며 종합우승을 달성했다. 또한 원메이크(단일 차종 경주) 레이싱 대회로 국내 최대 규모인 '현대 N 페스티벌(Hyundai N Festival)' 최상위 클래스에 타이어를 공급하며 대한민국 대표 퍼포먼스 브랜드로서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임채만 기자

기아, 첫 픽업 차명 '더 기아 타스만' 공개

다재다능 '라이프스타일 픽업' 강조

기아가 픽업 시장에 도전한다. 기아는 15일 "최근 브랜드 첫 픽업의 차명 '더 기아 타스만(The Kia Tasman, 이하 타스만)'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차명 타스만은 호주 최남단에 위치한 '영감(Inspiration)의 섬' 타스마니아(Tasmania)와 타스만 해협에서 유래했다.

다양한 자연환경과 풍요로운 문화가 조화를 이룬 타스마니아 섬은 멋진 풍경과 다양한 야생동물이 어우러지며 지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경이로운 경관을 자아낸다.

기아는 차명 타스만에 대담한 개척 정신과 때묻지 않은 자연의 신비로움이 공존하는 섬의 이미지를 투영해 일과 삶 어디서든 새로운 도전과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다재다능한 '라이프스타일 픽업'을 강조했다.

기아는 중형 픽업 타스만을 2025년부터 ▲다양한 야외 여가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국내 ▲'Ute(유티)'라는 고유명사가 있을 정도로 픽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호주 ▲사막과 같은 다양한 오프로드 환경이 있는 아중동 등 글로벌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해 고객의 다양한 목소리와 생활방식을 만족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아는 천연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타스마니아 섬에서 영감을 받은 대장장이가 기아 타스만 엠블럼을 제작하는 내용의 영상을 함께 공개했다.

(사진)

이에 앞선 지난달 3일에는 호주 유명 스포츠 스타들이 기아 Ute 차명을 추측하는 내용의 영상을 기아 호주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공개했는데 현지 고객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며 주목을 받았다. /임채만 기자

토지매매 (전원토지) 농막전문	상가 매매 (상무지구)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 중급반]
<p>1) 담양군 대덕면 (창평시장 5분) 780평 → 매매 1억2천만 (임야)</p> <p>2) 담양군 대덕면 (창평시장 5분) 302평 → 매매 2억1천 (농막포함)</p> <p>3) 장성 상오리 (장성댐 5분) 230평 → 매매 2억3천만 (농막포함)</p> <p>4) 담양 무정면 (광주 20분) 853평 → 매매 5억 (개발토지)</p> <p>5) 광주 서구 쌍촌동 (도로) 496평 → 매매 5억 (매년 보상나옴)</p>	<p>▶ 상무지구 중심 상업지구</p> <p>유흥가능 (룸, 노래홀, 홀덤편)</p> <p>6층 (전용 60평) 7층 (전용 40평)</p> <p>★ 전용 100평 ★ (분양160평)</p> <p>(보3천, 월수익 350만)</p> <p>▶ 시세 - 13억</p> <p>▶ 급매 - 7억 (용4억)</p>	<p>*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p> <p>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p> <p>2) 중급반 (실전부터 ~)</p> <p>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p> <p>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p> <hr/> <p>▶ 경매 물건 추천 ◀</p> <p>광주 전남</p> <p>광산구 신항동 (상가주택) ▶ 감정가6억4천 → 최저가 3억6천</p> <p>남구 진월동 (상가주택)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8억3천</p> <p>광산구 쌍암동 (상가빌딩) ▶ 감정가39억 → 최저가 27억</p> <p>북구 용봉동 (카센터) ▶ 감정가 6억 → 최저가 6억</p> <p>동구 학동 (상가빌딩) ▶ 감정가 4억4천 → 최저가 4억4천</p> <p>광산구 비아동 (토지,446평) ▶ 감정가 11억6천 → 최저가 9억3천</p> <p>광산구 도산동 (토지,94평) ▶ 감정가 3억4천 → 최저가 2억4천</p> <p>장성군 삼서면 (의료시설) ▶ 감정가 37억 → 최저가 26억</p>
010-6670-9800		062-382-5500